

50년 세월…1인 30역

'진짜' 배우 김성녀씨는 '벽 속의 요정'을 통해 소녀에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등장인물 전부를 혼자 연기하며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1950년대 말, 한 소녀가 있었다. 어느 날 들려온 벽 너머의 소리. 소녀는 벽 속에 요정이 있다고 믿는다. 소녀와 소통하기 시작한 벽 속의 요정은 옛날이야기도 들려주고 소녀와 함께 노래도 부른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가던 소녀는 벽 속의 요정과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며 그렇게 성장해간다. 벽 속의 요정과 함께 성장한 소녀는 결혼하고 그리고 황혼기를 맞는다.

2005 올해의 예술상, 2005 동아연극상 연기상, 2005 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3 등 지난해 각종 상을 휩쓴 '뮤지컬 모노드라마 김성녀의 벽 속의 요정'이 7월 6~23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앙코르 공연된다.

'김성녀 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찬사와 함께 재공연 요청을 받아오다 3개 부분 수상을 기념해 앙코르 공연을 올리는 것이다.

벽 속의 요정과 함께 사는 어린 딸과 엄마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스페인 내전당시의 실화를 토대로한 원작을 극작가 배삼식씨가 우리 상황에 맞게 재구성 · 각색했다.

5살 때부터 무대에 섰던 김성녀씨는 '최승희' '게이오9년 조각구름' '에비타' '피가로의 결혼' '심청전' '춘향전' 등 연극 뮤지컬 악극 마당놀이를 넘나들며 자신의 역량을 펼쳐왔다.

'벽 속의 요정'에서 김성녀씨는 50여 년의 세월을 배경으로 1인 30역을 소화해냈다. 지난해 6월 배우 김성녀의 첫 모노드라마로 세상에 선보인 이래 전회기립박수의 기록을 세우며 큰 화제와 호평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다시 연극으로 돌아가 보자. 커가면서 벽 속의 요정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소녀. 해방 후 좌우익의 이념 대립 속에서 억울하게 반정부 인사로 몰리게 된 아버지가 벽 속으로 피신해 숨어살았던 것이다.

행상으로 힘겹게 삶을 이어가던 어머니는 베를 짜 장사를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는다. 늦은 밤,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는 남몰래 수건을 뒤집어쓰고 베를 짰다. 하나 뿐인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자신이 짠 베로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벽 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사면이 된 아버지는 짧지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맛본다.

힘겨운 삶을 살아온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 '살아있는 건 아름다운 것'이라며 아버지를 격려했던 어머니도 세상을 뜬다. 어머니와 같은 나이가 된 딸은 어느 바람 부는 날, 벽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대상황과 벽 속에 숨어 딸의 성장을 지켜봐야했던 아버지의 애틋한 부성애, 가난과 남편의 부재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 온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벽 속의 요정'은 가족과 사랑에 대한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02)747-5161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뮤지컬 모노드라마 '김성녀의 벽 속의 요정' 앙코르 공연 /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 7월6~23일



분단의 아픔
애틋한 부성애
굳건한 어머니
진한 감동 선사







오스트리아 탄츠 좀머 페스티벌에 4~5년간 검증과정을 거쳐 한국 최초로 코리아나예술단이 초청됐다. 사진은 2003년 '니르바나' 공연 모습.

영산재, 세계 최고 무용축제에 선다

오스트리아 '탄츠 좀머 페스티벌' 초청 공연 니르바나 / 7월 13 · 18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가 세계적인 무용축제 오스트리아 탄츠 좀머 페스티벌에 초청됐다.

김향금 창원대 교수가 이끄는 코리아나예술단이 영산재를 공연예술로 승화시킨 '니르바나'로 탄츠 좀머 페스티벌에 한국 무용팀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니르바나'는 7월 13일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18일 그라츠에서 각각 공연된다.

이번에 무대에 오르는 '니르바나'는 고구려 장천 고분벽화의 내용, 고려불화, 조선불화 및 감로탱화에 나타난 무용과 한국무용이 점목된 2시간짜리 공연이다. 그 바탕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인도 영취산 법회 즉 영산회상을 상징화한 영산재가 있다. 영산재는 스님들이 춤과 노래로 부처의 공덕을 기리고 죽은 자를 천도하며 산 자의 복을 빌어주는 재이다. 이번 공연에는 법현 스님을 비롯해 월타 스님, 김향금 교수, 코리아나 예술단원 35명이 참가한다.

나비춤 부채춤 등으로 화려한 의상과 춤사위를 선보이는 1장에 이어 2장은 대금 독주로 문을 연다. 관욕, 조전무 등이 엄숙함으로 무대를 장엄한다. 상단권공이 주를 이룬 3장은 복청게, 천수바라, 식당작법을, 회심곡과 회향의식, 탑돌이가 벌어지는 4장은 떠나보내는 소대의식으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오스트리아 탄츠 좀머 페스티벌은 세계 최고의 무용단을 선발해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동안 현대무용에 치중해왔던 탄츠 좀머 페스티벌이 올해부터 전통예술에 눈을 돌려 처음으로 우리나라 영산재가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작품을 총괄하는 법현 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은 "7월 4~11일 폴란드 공연을 마치고 오스트리아 공연에 들어간다"며 "오스트리아 공연은 4~5년 전부터 선별작업 끝에 초청된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1월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초청공연을 할 계획이다.

코리아나예술단은 2000년 한국 전통예술을 활성화하고 전 세계에 널리 알리자는 목표로 설립된 이래 25개국에서 공연하며 각종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코리아나예술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향금 교수는 88올림픽 폐막식 안무와 아시안 게임 월드컵 개막식 폐막식에서 안무를 맡기도 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찰벽화 의상을 재현한 승무.



선 사상을 담은 '공'.



김향금 교수는 한국무용과 불교를 접목시켰다.

예·효 실천을 위한 현대불교 윤년 특별 기획

장락수(長樂壽)는 장수(長壽)의 기원과 정성을 담은 불자수의입니다. 불자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불교신문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소중한 효심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지은 '윤년수의'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최상의 효행 선물이었습니다. 불자님들이 윤년윤달에 준비한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쁨을 드릴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는 부모님께 깊은 만족과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불자수의 長樂壽 장락수



장락수의 특징
- 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원사심사와 품질보증 Q마크를 획득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면사실로 직접 제작
- 옷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 주문 : 제작한 수의함

품명	재질	특징	판매가
珍品	대마 100%	최고급 원단 안동포로 제작한 한정된 물량의 최고급 불자수의	4,500,000
名品	대마 100%	최상의 중국산 흑대마, 안동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품격 유지	1,800,000
特品	대마 100%	중국산 사천대마, 남해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실용적 가격	1,450,000
上品	저마 100%	중국 현지에서 엄선된 고급 수직저마를 원단으로 제작한 수의	600,000

※ 멧베 추가 주문시 판매가의 10%가 추가됩니다.

제품구성
- 남성용(18종) : 도포 도포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허리띠 대님 장매 악수 고깔
- 여성용(17종) : 원삼 원삼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치마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장매 악수 고깔

현대불교신문사 기획사업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직), 2004-8219 / 팩스 02)737-0696
홈페이지 http://biz.buddhapia.com e-mail : onlymaum@buddhapia.com